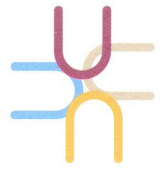


제 23호
201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회보

Contents

- 1 교수회장 인사
- 2 특별기고
반선섭 교수 | 윤찬영 교수 | 박수자 교수 | 강철웅 교수
- 10 신임교수 및 정년퇴임교수 소개
- 13 대학 소식
- 14 교수 동정
- 16 교수회 활동
- 20 타대학 학칙화 분석결과
- 21 제16대 평의원회 명단

제 23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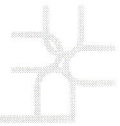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FACULTY



대인애연(對人靄然) 유사감연(有事敢然)

교수회장 · 박찬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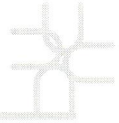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011년 교수회보지가 발간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회장으로 16대 교수회를 이끌면서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거 교수회를 운영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기성회계로 국제교류관 건립에 대한 교수 투표를 하여 학교 당국에 건립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고 국고 20억원을 추가로 따오도록 하는 일부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 이후 6대 신임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단과대학별 선거를 통해 선발해 원만한 총장 선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국교련 주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 작업과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를 방학 동안 교수회 법정화 TFT팀을 구성해 교수 법정화에 대한 학칙, 교수회 규정, 평의원회 규정, 단과대학 평의원회 규정안을 만들어 전체 교수에게 공지하고 학교 당국과 총장 후보자들에게 공지해 모든 후보자가 교수회 법정화를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대학 선진화에 따르면 학장선거도 없이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교수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임명된다면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학교 당국에 견제를 하는 교수회/평의원회 활동이 학칙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평의원회 운영규정에는 총장 및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의 임면동의 및 해임건의,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과거로부터 총장의 교수회/평의원회 편하에 의해 제대로 기능이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학내 구성원과 대학 집행부가 대화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면, 당장은 추진 속도가 느리게 보이지만 견실한 추진이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총장 및 차기 총장은 이러한 것을 직시해 조속히 교수회/평의원회 학칙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학교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과 그동안 선정되던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 모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거점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우리를 제외한 후발 국립대학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자금이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한 결과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학교 발전의 큰 그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낸 결과입니다. 학교의 기획 기능은 학교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충실한 기획을 하고, 그에 따라 꾸준히 추진하면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기 총장은 현재의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학교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곧 새 총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총장이 전임 총장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리더십으로 강릉원주대학교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교수회를 대인애연(對人靄然) 유사감연(有事敢然)의 뜻, 즉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하며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당선자에게 바란다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 반선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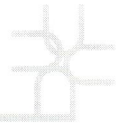
며칠 전 교수회로부터 총장 당선자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원고를 촉탁 받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주위의 몇몇 교수들에게도 물어 보았다. 그분들의 대답은 짧고도 단호했다.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정말 그렇다. 인간의 양심을 걸고 상식대로 하면 그 어느 누가 발목을 잡겠는가! 선거에 도움 준 교수들 이익이나 챙겨주고, 대학의 발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개인적 영리를 위해 엉뚱한 일만 한다면 대학과 대학의 구성원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상식대로 행정을 하여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총장 당선자는 공약 집에서 우리 대학교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적시하였다. 입학자원의 감소, 대학의 법인화와 구조조정, 성과연봉제의 도입, 낮은 취업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학만이 갖고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바램을 적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는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총장의 권한이 단과대학장의 임명 등 현재보다 더 막강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점에 기초하여 총장 당선자에게 바램을 적어 본다.

우선 총장 당선자는 공대이전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아직 총장으로 임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강릉 지역사회는 시끄럽다. 공대를 이전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예컨대 매칭 펀드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의 구성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교육부의 인가와 부지확보 등 공대의 원주로의 이전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대교수를 위함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원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나 공대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구성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제5대 총장시절 교명변경으로 인한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공대이전이라는 암초에 발목 잡혀 총장이 일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중의에 따른 행정을 하기 바란다. 사회과학연구소장 임명이 아주 좋은 예이다. 총장에게 기본 나쁜 행동을 했다고 사회과학대학에서 내려오던 관례를 무시하고 엉뚱한 교수를 소장으로 임명하여 연구소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현재의 총장 본인이다. 총장이 관례대로 내려오던 연구소장직까지 간여하는 것이 얼마나 옹졸한 처사인지는 본인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많은 것 바랄 것 없이 총장 당선자는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지난 총장과는 다르게 열린 총장이 되어 교수들의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 이런 면에서 닫혀있는 총장과의 대화도 원래대로 열어 놓길 바란다. 아울러 막강해진 총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교수회를 학칙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당선자가 일반 교수시절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 주고도 남을 일이다. 만약,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그냥 지나친다면 과거 총장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후보자 신분으로서 득표를 위해 내세운 공약을 반드시 지켜 주기 바란다. 公約이 空約으로 끝난다면 싸구려 정치판의 등장인물과 뭐가 다르겠는가? 명색이 지성의 요람인 대학의 총장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 같다. 당선자는 급여, 복지비 등(8개 항목)으로 약 64억을 추가로 지출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기성회비 수입의 약 20%로, 학생 1인당 연간 70만 원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과연 이러한 공약이 가능한 일일 것인가? 그리고 공약의 상충관계도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것 같다. 조직의 세분화와 보직의 신설은 구조조정이나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어찌되었든 제6대 강릉원주대 총장선거가 끝났다. 총장 당선자에게는 축하드리며, 끝까지 선전한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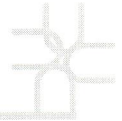
■ 대학교수와 교육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 윤찬영 교수

대학교수에게 교육에 대한 지식이 과연 필요한가? 그렇다면 대학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대학교수가 되고나서 첫 4년간을 정신없이 보내고 난 후에 최근 나에게 가장 고민이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주제이다. 분명히 교수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교수의 임용과 승진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교수들의 관심사에서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현재 교수의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즉 논문실적이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고려요인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대학관계자가 연구능력이라고 답할 것이다. 학교에 임용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이라는 항목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의 승진은 오로지 연구업적, 즉 논문실적만으로 결정된다. 최근 일부 유명대학에서 단순히 논문실적이 아닌 해외 저명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논문과 같이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증명된 연구능력만이 고려될 뿐 교육과는 무관하다.

교수의 임용에서부터 평가나 승진에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유일한 평가 잣대로 쓰인다면 연구소에 속해 있는 수많은 연구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대학은 아직까지 타 대학에 비하여 승진 기준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비슷한 연배의 다른 대학 교수들을 보면) 현재 시스템은 교육과 관련하여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는 신입 교수에게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승진요건을 강화하면서 연구에 집중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 커진다. 교육은 테뉴어를 받은 후이나 신경 쓸 여유가 생기는데 그나마도 앞으로는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별한 사명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지금보다 교육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다행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을 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강의평가(수업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개선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를 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 개개인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 같다. 교육 역시 연구 못지않게 중요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대학에서도 학생을 잘 가르치고 훌륭한 지성인으로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음악가와 여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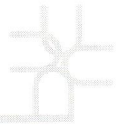
문화대학 음악과 · 박수자 교수

예술가에게 있어 여인이란 인생의 반려자 뿐 아니라 예술적 영감을 풍부하게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되곤 하였습니다. 음악가들도 그 성격에 따라, 시대의 연애 사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로 채는 불륜을 하였으며 혹은 평생 한 여인을 가슴속에 품고 작품을 쓰며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바흐는 두 번 결혼하여 2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육촌인 마리아 바르바라였으며 그녀가 죽은 후 열여섯 살 연하인 소프라노 가수 안나 막달레나 뵐켄과 재혼하였습니다. 이 결혼에서 13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데, 바흐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소품》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헨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모짜르트는 라틴어에서 온 ‘아마데우스’이름 그대로 ‘신의 은총을 가진’천재였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그의 아내 콘스탄체는 낭비벽이 심하고 경박하며 부주의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문제를 처리하는데 유능하였고 남편이 음악을 끝까지 작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과 사귀었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비련으로 끝났습니다. 영화 ‘불멸의 연인’에서 보면 불멸의 여인이 누구인지를 파헤치는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후 비밀서랍에서 세통의 연애편지가 발견되었는데 수취인이 모두 불멸의 여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인데 과연 불멸의 여인이 누구일까요? 약혼 까지 하고 평생을 그리워한 백작의 딸 테레제? 아니면 귀족의 딸 조세피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78》은 테레제를 위해 작곡되었으며 헌정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슈베르트는 첫사랑의 여인이자 약혼자인 테레제 그로브를 《미사 F장조》 초연 때 만났으며, 그 후에도 자주 자신의 작품을 교회에서 연주하며, 어느 사이엔가 이 아름다운 가수를 연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슈베르트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랑은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테레제는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고, 슈베르트는 평생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쇼팽은 리스트로부터 소개 받은 여섯 살 연하의 소설가 조르주 상드와 열애에 빠져서 그녀와 9년 동안 동거하였습니다. 그녀는 연애 편력이 풍부한 것으로도 유명했으며 이미 남편과 아이들이 있으면서도 가냘프고 여성적인 쇼팽에 끌렸습니다. 심한 결핵이 있던 쇼팽을 간호 했던 상드의 애정은 모성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요르카(Majorca) 섬에서 요양 생활을 했었는데, 이 시기는 상드의 간호 속에서 씩씩하고 강한 인격의 영향을 받아 작곡이 절정이었습니다. 《24개의 전주곡》과 마지막 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비롯하여 그의 대표곡이 작곡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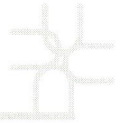
리스트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인연을 맺었는데, 6세 연상인 다구 백작부인과 카롤리네 비트겐슈타인 공주입니다. 다구 부인과는 동거 생활을 하여 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코지마는 후에 바그너의 부인이 됩니다. 리스트는 러시아 연주여행 때 비트겐슈타인 후작부인을 알았습니다. 부인은 2년째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리스트의 신뢰와 존경심은 연애로 바뀌었고 결혼을 위해 로마로 갔으나 교황청이 끝내 후작 부인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결혼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카롤리네는 종교생활에 들어가고, 리스트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의 옷을 걸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순례의 해》는 그의 종교적 색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브람스는 스승인 슈만의 부인 클라라를 사모하였으나 이루



지 못하고 가슴 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신경쇠약으로 자살미수와 입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슈만가를 도왔으며, 스승의 부인이며 뛰어난 피아니스트인 클라라와의 우정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평생 친구로서 가슴 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클라라가 졸도한 후 병세가 악화되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성서를 토대로 한 《4개의 엄숙한 노래》(op. 121)를 작곡하였습니다. 클라라가 세상을 떠난 뒤 브람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쇠약해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르간용의 종교적인 오르간 곡 《11의 코랄전주곡》(op. 112)과 《독일 레퀴엠》을 작곡하였습니다.

바그너는 혁명을 피해 스위스에서 머무는 동안 그를 돌봐준 베젠동크부인과 사랑을 하였는데, 《베젠동크가곡집》과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담아 승화시켰습니다. 그 후 제자이며 지휘자인 한스 폰 뷔로의 부인이자 리스트의 딸인 코지마를 사랑하여 재혼하였습니다. 이때 그에게는 이미 코지마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제자의 아내를 빼앗은 셈이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안토니아 미류코바와 결혼했으나 곧 파탄을 맞았으며, 철도 경영자 부호의 미망인 폰 메크 부인을 알게 돼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부터 교직을 떠나 창작활동에 전념 할 수 있었습니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공주》, 《호두까기 인형》 등 발레곡들이 이때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후원자인 폰 메크 부인과의 관계입니다. 자기의 음악을 이해하고 성원하고 재정적 후원까지 하는 부인을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터인데(저의 생각에는) 평생 만나지 않고 편지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코프스키는 자신이 게이(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억지로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다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다 동성애적 성향마저 있어서 그랬을까요?

드뷔시는 남의 아내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습니다. 미성의 유부녀 에마(Emma)와의 연애는 부인 릴리 테크시에와의 사이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친구도 그의 곁을 떠나면서 드뷔시의 마음에는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엠마와의 사이에서 난 딸 슈슈를 위해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의 세계》를 작곡하였는데 고독의 분위기는 음악에서조차 묻어나고 있습니다. 음악가들도 그 성격과 처한 환경에 따라 여인들과의 관계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베를리오즈는 당시 제일의 인기 여배우 헤리에타 스미스손에게 반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3년이나 그녀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일의 인기 여배우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질 리도 없어 번민과 고뇌가 공연히 환상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마침내 《환상 교향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 그녀와 결혼했을 때는 이미 열정이 식어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그녀 때문에 환상교향곡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따스한 봄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떨지요. 음악가의 여인이 떠오르면서 음악이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 입니다.



자유와 사랑, 늘 처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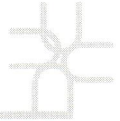
인문대학 철학과 · 강철웅 교수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일이 즐거운 사람이다. 세상일들이란 게 대개, 잘해 보았자 즐겁긴 한 데 삶의 수단을 제공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생계를 해결해 주긴 하지만 즐겁진 못하거나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게 고작이다. 그 와중에 일하면서 놓고 또 놓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어렵지만 매력적인 희랍어(아니, 오히려 ‘어려워서 매력적’이라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내가 즐겨 인용하는 희랍 속담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은 어렵다”(chalepa ta kala)는 말이 있다)에 꽂혀 결국 이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고, 플라톤 읽는 게 즐거워 판 곳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내온,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고대 희랍 철학에 푹 빠져 있게 된 나는, 그러고 보면, 일이 놀이이고 또 놀이가 일인 셈이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행복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면, 작년 초 이 학교에 부임해 오기 전까지 ‘강사’ 신분으로 보내야 했던 그 불안정한 삶(나는 이걸 종종 ‘야인’(野人) 생활이라 부른다)을 진작에 접고 말았을 지 모른다.

그 동안 강릉에 내려온 후의 삶이 이전에 비해 어떠한지를 물어오는 이들이 꽤 많았다. 바라는 만큼 명쾌하고 시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묻는 편에서 오히려 멋쩍었을 수도 있다. 그때마다 시시콜콜 속을 다 드러낼 계제도 물론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방금 말한 ‘일과 놀이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행복’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교수’의 삶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다는 생각이어서 인상에 남은 만한 신통스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은 참에 임용을 전후하여 소소하게 달라진 것들 한 둘을 비교해보면서 저간의 소회를 간략히 피력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관심에 부응할 만한 미시적 답변을 갈음하고자 한다.

이곳 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것을 꼽자면 아무래도, 그간 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원천이던 동료들과의 학문적 대화가 물리적 거리로 인해 소원해졌다는 점이다. 90년대 중반쯤부터 서양 고대 철학 연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희랍어 텍스트들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 ‘독서 모임’이 새 천년에 들어와 플라톤 번역 전집을 공동으로 내는 어엿한 ‘학당’이 되었고 3년 전에는 ‘법인’의 모양새까지 갖추었다. 내 ‘야인’ 생활 내내 같이 읽고 같이 고민하며 동고동락하던, 그야말로 내 서울 생활의 핵심을 차지하던 학문 공동체다. 세상에 ‘폼 나는’ 일들 다 마다하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서양 고전 번역 작업을 위해 묵묵히 어려운 희랍어 텍스트들에 파묻혀 지내는 마음 맑은 ‘선비들’이 모인 곳이다. OECD 나라들 가운데서 중요 문화 자산인 서양 고대 문헌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플라톤 번역 전집이 아직 없는 유일한 문화 후진국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다.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무를 힘없고 가난한 연구자들이 나눠 지고 있는 셈이다. 모쪼록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소중한 도움의 손길을 보탬 의지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들을 눈여겨보아 주길 바란다. 아무튼 내 학문적 삶의 요람이요 터전인 이 공동체가 있는 서울을 떠나 강릉에 내려오고 나니, 한번 발걸음 하는 것만도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동료들과의 학문적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줄어든 만큼 제자들과의 인격적 교감과 유대의 기회가 늘 어났다. 서울 생활에서도 푹푹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는 보람이 적지 않았으나, 그들과의 교류는 대개 일회성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들이 꾸준히 변화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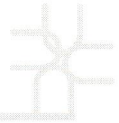


관찰할 수 있을 뿐더러 단순한 학문적 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만남까지 가능해졌다. 바야흐로 내 일의 무게 중심이 텍스트 자체나 동료들로부터 새로운 지적 자극과 격려를 얻는 학문적 성격의 활동에서 점점 책임지고 보살피는 가운데 따뜻한 정서적 유대와 보람을 얻는 교육적 성격의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런 보람 사이사이로 어떤 아쉬움 같은 게 문득문득 비집고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안정되고 호젓하지만 치열함을 잃어버렸다고나 할까. 그 허전함을 메우려고 이번 학기엔 플로티누스라는 신플라톤 주의자의 텍스트를 함께 읽으려, 또 플라톤 텍스트들의 번역 작업에 힘을 보태려 매주 상경하고 있다. 정작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만나러 가고 오는 시간을 더 많이 쓰면서 말이다. 그때마다 전원 대신 도시를 선호한 소크라테스의 선택을 떠올리곤 한다. 두어 번 전투에 참가하러 나간 것 말고는 자기 도시 아테네를 벗어난 적이 없다. 왜 아테네 시내, 그것도 성벽 안에만 머무느냐는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답한다. “난 배우기를 좋아하거든. 그런데 시골 땅과 나무는 아무 가르침도 내게 주지 않지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한다네.”(플라톤 『파이드로스』 230d) 아무렴 자연이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겠는가마는,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배우려던 건 자연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나도 아직은 자연의 가르침보다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더 귀 기울일 작정이다.

이런 몸부림으로 약간의 위안을 얻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런 몸부림이 내 안에 뻗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중심부 의식 내지 중심부 지향성을 반영하는 건 아닌가 반성하기도 한다. ‘중심’과 ‘주변’을 나누고 중심에서 멀어져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1년 남짓 ‘지방’ 생활을 해 보니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지방의 설움 같은 것이 주변에서 문득문득 느껴지곤 한다. 인구가 줄어드니 교통이나 문화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또 사람이 모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판국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관심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대 비서울/비수도권 간의 간극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측면이나 심지어 심리적, 정서적 측면으로까지 점점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이면에서 국가의 책임 방기(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져 국토의 균형 발전 같은 장기적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비전을 등한시하는 등의)를 읽어내고 건설적 비판과 대안 모색에 앞장 서야 할 대학 사회에서조차 일단 서울에 더 가까이 가고 보자는 중심부 지향성만이 팽배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과 번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단한 자기 계발 노력의 일환이어야 할 서울행이 자칫 중심부 지향성의 마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고 지긋이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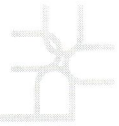
이제 이곳 학교 생활을 통해 얻는 소소한 낙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선 식구들 눈총을 받으며 이고 살았던, 그래도 자리를 다 못 찾아 이곳저곳에 분산해 놓지 않을 수 없었던 수많은 책들(그 가운데는 통산 5년 가까이 보낸 미국과 영국 생활 중에 틈만 나면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찾아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들이 많다)을 한 공간 안에 모아 놓고 보는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서라면 이 많은 책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 공간을 제공할 만한 대학이, 단연컨대, 거의 없을 것이다. 고맙게도 큼직한 방을 얻



어 소중한 책들을 거반 다 손에 잡히는 곳에 두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새록새록 즐거운 일이다.

임용 심사만이 아니라 임용 후 강의에서도 끈질기게 영어를 요구하는 요즘 대학들의 아주 일반화된 세태를 감안하면, 영어 강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역시 내가 이곳 생활을 여유롭게 누리는 데 일조한다. 대학 교육을 직업인이 되기 전 단계의 초보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업 OJT 기관쯤으로 여기는 비즈니스 마인드와 결탁한 이 ‘영어 몰입 교육’ 논의는 한때 거론되다 만 영어 공용화 논의의 한 변형태라 할 수 있다. 대학과 교육의 기본 사명은 우리말로 사고하고 우리말로 의사소통하면서 우리말로 된 문화 자산을 만들고 가꾸어가는 데 있다. 그런데 그저 의사소통의 한 도구에 불과한 걸 목적의 자리에 올려놓고 떠받드느라 정작 무슨 생각을 어떻게 나누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엔 소홀한 것이 오늘날 ‘영어 몰입 교육’의 현주소다. (물론 ‘영어에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이다. 누가 왜 몰입해야 하고 또 무슨 내용을 갖고 몰입하느냐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양 교육의 틀이나 목표, 과정이 잘 확립되어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꺼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어 몰입’도 그런 다양한 ‘꺼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으로 편제되어야 하리라 본다.) 영어만 유창하게 말하도록 하면 잘 된 교육인 양 영어 수업을 많이 개설할수록 대학 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교육 당국과 그런 절름발이 교육을 강요하는데 대해 저항하는 대신 신입 교수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기성 교수들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행태 모두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가 이런 영어 강의 광풍에 휩싸이지 않은 건 특히 신입 교수인 내게 무척 다행스런 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그 광풍에 휘말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고 보면, 우리 교수들 모두가 경계심을 갖고 이런 무개념과 천박한 비즈니스가 아카데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막았으면 좋겠다.

이점에서 학교의 첫 느낌을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주 눈이 내리던 작년 2월 초 어느 날이었다. 임용 심사용 공개 강의를 끝내고 대기하는 동안 우연하게 눈길에 가닿은 학교의 교훈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자유, 진리, 창조.” 학부 때부터 너무도 자주 듣던 모교의 표어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도 그렇거니와 모 유명 사립대학의 표어 “obedire veritati”(진리에 순종하라)나 모 유명 여자대학의 표어 “진, 선, 미”에서 잘 나타나듯, 대학의 교육 이념으로는 단연 ‘진리’가 으뜸으로 꼽히곤 한다. 그런데 사실 대학의 전통이 시작된 서양에서 대학이 표방하는 ‘진리’는 암암리에 종교에 연루된 것이었다. 이점을 잘 드러내는 게 또 다른 유명 사립대학의 표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이다. 이런 모토대로라면 자유는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그 ‘빛’에 의해 자유가 따라 나오고 우리가 무지의 어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가져올 자기만의 진리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추구할 타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진리를 반성하고 개선할 자기 자신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인류가 경험해온 참혹한 종교 전쟁의 역사가 한 예다. 오히려 인간과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탐구와 비판의 자유가 한껏 향유될 때 어느 새 우리는 성큼 진리 앞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보다 오히려 자유가 우리를 진리케 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철학의, 아니 학문 일반의 기본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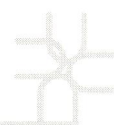


신이 바로 자유라는 생각을 해오던 내게 이 교훈은 매우 반갑고 공감이 가는 것이어서, 이를테면 첫 눈에 반한 셈이 됐다. 늘 이 첫 느낌 그대로이길 바란다.

나는 교양 교육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아마추어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어설픈게 일하는 걸 배우자는 게 아니다. ‘아마추어’(amateur)는 라틴어 ‘아마토르’(amator)에서 왔다. 그러니까 본래 ‘사랑하는 사람’을 뜻한다. 프로가 된다는 건 어떤 일에 능숙한 전문가가 된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걸 생업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반면에 아마추어로 남는다는 건 생계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그냥 좋아서 한다는 뜻이다. 서두에서 말했듯 일이 곧 놀이인 사람이 행복하다. 생계를 얻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이어서 계속 하는데 거기서 생계까지 해결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대학 생활 4년 동안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일에 한번 몰두해 보는 것, 그것에 미쳐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열정, 자신의 전 존재를 맡겨 보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정민 선생 말씀마따나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못한다”(不狂不及). 교육은, 특히 교양 교육은 바로 그런 몰두할 수 있는 ‘꺼리’를,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학은 그런 아마추어들의 천국이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어디서든 그렇겠지만 대학에서도 늘 처음처럼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 학생은 스펙이나 학점을 쌓는 데 급급해 입학 때 품었던 푸른 꿈을 잊고 있지 않은지 경계할 일이다. 학점 잘 주는 교수, 스펙에 도움 되는 과목만 따라 다니다 보면 정작 사람이 되는 일, 인간의 품미를 갖추는 일에 게을러지기 마련이다. 쪼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금방 얻어내기 어렵더라도 자신의 꿈을 키우는 데 필요한 강의를 찾아 전력을 다해 보고, 폭넓게 독서하며 자유롭게 사유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특권이자 의무일 것이다.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가시적인 업적 점수나 덧없기 짝이 없는 자리들에 목을 매느라 임용 때 가졌던 풋풋한 각오를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늘 경계할 일이다. 감동을 주는 수업을 위해 헌신하며 활기차게 연구하고 교류하는 데 시간을 바치는 것이 교수로서의 특권이자 의무 아니겠는가. 교수든 학생이든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허명에 매달리기보다 먼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 인간이 되고 인간을 만드는 일에 몰두할 때 자유롭고 건강한 대학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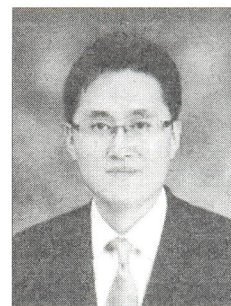
처음 강단에 섰던 때의 설렘과 감동을 잊지 말자고 늘 스스로 다짐한다. 누구나 처음처럼만 하면, 아니 적어도 그 처음의 기억을 자꾸 떠올려보는 노력만이라도 한다면, 멋진 학교, 멋진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강의하는 기계나 월급쟁이 지식 장사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란 어쩌면 생각만큼 쉽지 않을지 모른다. 조금만 방심하면 매너리즘과 나태가, 속물근성이 여지없이 끼어들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프로보다 아마추어로 남고 싶다. 좋아하는 일에 내 전부를 거는 자유로운 아마추어 말이다. 늘 그렇게 처음처럼 한결같은 학자, 한결같은 선생, 한결같은 사람이고 싶다.



신임교수 및 정년퇴임 교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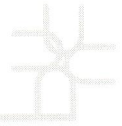
신임교수

1. 성명 : 김대식
2. 소속 : 과학기술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정밀기계공학전공
3. 메일 : dkim@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760-8728
5. 학력
 - 학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 석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 박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6. 경력
 - (2005.11-2007.1)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 Staff
 - (2007.2-2008.8) 삼성테크윈(주) 파워시스템연구소 책임연구원
 - (2008.9-2010.2) 강원도립대학 자동차과 학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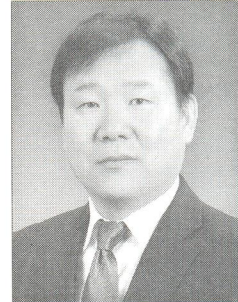
1. 성명 : 정명재
2. 소속 : 자연과학대학 대기환경과학과
3. 메일 : mjeong@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327
5. 학력
 - 연세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이학사
 -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이학석사
 -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대기해양과학과 이학박사
6. 경력
 - (1998.9-2000.5)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 (2005.12-2007.11) 메릴랜드 주립대학교/나사
고다드우주비행센터 박사후 연구원
 - (2007.11-2011.2) 메릴랜드 주립대학교/나사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연구 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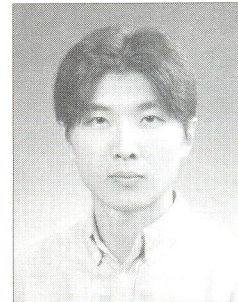


신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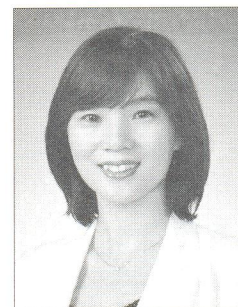
1. 성명 : 최성범
2. 소속 :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3. 메일 : sbchoi@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555
5. 학력
 - 강릉원주대학교 체육학사
 -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6. 경력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학과 수학
 - 동우대학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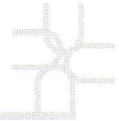


1. 성명 : 유기연
2. 소속 : 치과대학 해부학 및 조직학교실
3. 메일 : kyyoo@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456
5. 학력
 - 학사 : 한림대학교 유전공학과
 - 석사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조직학전공
 - 박사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신경생물학전공
6. 경력
 - (2008.3-2009.12) 한림대학교 천연의약연구소 전임연구원
 - (2010.1-2010.12) 한림대학교 천연의약연구소 연구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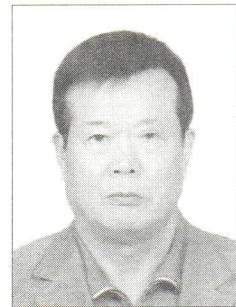
1. 성명 : 배수명
2. 소속 :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3. 메일 : edelweiss@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5726
5. 학력
 - 연세대학교 건강증진학 전공(보건학 석사)
 -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 전공(치의학 박사)
6. 경력
 - 해전대학 조교수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수이사
 - 한국치위생학회 이사





정년 퇴임 교수

허 천 교수 정년 퇴임식이 2011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에 경포 경포비치호텔 1층 별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송 총장, 박찬일 교수 회장, 조규권 학장, 주희남 대한컨설팅(주) 전무이사가 축사를 하고 학장과 처장, 본교 교수 및 제자를 비롯한 300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퇴임식이 이루어졌다. 허 천 교수님은 퇴임 후 본교 명예교수로 계신다.



1. 학 력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경기지도과 체육학사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2. 주 요 경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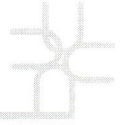
- 1981. 4. ~ 2011. 2.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교수
- 1984. 6. ~ 1986. 5. 강릉대 체육부장
- 1987. 1. ~ 1989. 1. 강릉대 학생과장
- 1991. 3. ~ 1993. 2. 강릉대 학생처장
- 1997. 3. ~ 1999. 3. 강릉대 예술체육대학장

3. 주 요 활 동

- 한국체육학회 평생회원
- 대한 대학스포츠위원회(KUSB)위원
- 강원도 생활체육 협의회 골프 연합회 회장
- 강원도 문화상 심사위원 역임
- 한국체육과학회 이사
- 한국대학 테니스 연맹 부회장
- 강원도 체육회 이사, 강릉시 체육회 이사
- 한국에어로빅협회 심사위원

4. 연 락 처

- 전화번호 : 010-7138-7559
- E - mail : bsyds@gwnu.ac.kr



대학소식

1.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 김명호 교수 선출

제2대 강릉원주대 총장임용후보 1순위로 김명호 교수가 선출되었다. 김 총장임용후보는 2011년 4월 6일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해람문화관에서 전체 투표인단 563명 가운데 437명이 참여한 결선 투표에서 220표를 얻어, 176표를 획득한 김남두 교수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기 총장후보자로 추천된다.

김명호 총장임용후보는 성균관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를, 한양대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했다.

2. 2010학년도 우수 강의 교원 시상

〈전임 - 전공 부문〉

- 최우수 : 전기공학과/박영진 교수
- 우 수 : 정보기술공학과/김재호 교수
- 우 수 : 생명화학공학과/염승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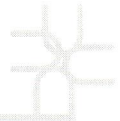
〈전임 - 교양 부문〉

- 최우수 : 체육학과/김기영 교수
- 우 수 : 무역학과/박형래 교수
- 우 수 : 독어독문학과/강호진 교수

3.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성황리에 종료

우리대학교가 주관한 제40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가 지난 5월 2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7일(금) 개인복식전, 28일(토) 단체전 경기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전국의 4년제 대학 82개교 1500여명의 선수 및 응원단이 참가하였으며 개인복식전 560팀 단체전 112팀이 출전하였다. 우리대학,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하여 30여개의 후원 기관 및 기업이 후원하였으며 대회 총 소요예산은 2억2천여만 원(현물 포함)으로서 단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5억원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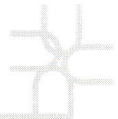
우리대학 선수단은 개인복식전 21팀, 단체전 4팀 모두 42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경기결과는 단체전 A(김순귀, 조규권, 김백기, 김세윤, 염승호, 이종철 교수)공동3위, 여성부 개인복식전 준우승(홍영희 교수), 개인복식전 8강 진출(구학서-김순귀, 조규권-김세윤, 김백기-이종철)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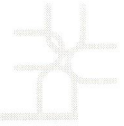
교수동정

2010. 6. ~ 현재

- ◎ 전자공학과 강문식 교수, 저서 “데이터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2010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 정보통계학과 이상호 교수, 저서 “MAPLE에 의한 확률계산”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 식품가공유통학과 이근택 교수, 56차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조직위원장 선임
- ◎ 국제통상학과 황원규 교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본 위원 임명
- ◎ 국어국문학과 장정룡 교수, 국제아시아민속학회 제4대 총회장에 선출
- ◎ 세라믹신소재공학과 박상엽 교수, 강릉시민상(경제진흥부문) 및 강원도지사 공로 표창 수상
- ◎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 김길중 교수, 2010년 한국통합생물학회 우수 논문상
- ◎ 해양생물공학 변희국 교수, 2010년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 ◎ 기계의용공학전공 김봉석 교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우수과제 표창
- ◎ 전자공학과 정태윤 교수, 지역SW공모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수상
- ◎ 신소재금속공학과 최원열 교수, 강원도 10대 발명대회 강원테크노파크원장상 수상
- ◎ 산업정보경영공학과 박준철 교수,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 ◎ 독어독문학과 안진태 교수, 한국독어독문학회 신임 회장 선출
- ◎ 경영학과 김명호 교수,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포장’ 수상
- ◎ 의상디자인학과 김용문 교수, (사)중앙아시아학회 신임 회장 선출
- ◎ 전기공학과 김종겸 교수, 전기학회 학술상 수상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 전기학회 학술상 수상
- ◎ 경영학과 정기성 교수, 한국 서민 봉사상 수상
- ◎ 기계의용공학전공 이원섭 교수, 경기도지사 공로 표창 수상(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
- ◎ 중어중문학과 최일의 교수, 공저 “중국어이야기”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우수학술도서 선정



- ◎ 자치행정학과 김구 교수,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상 수상
- ◎ 체육학과 조규권 교수,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 ◎ 국제통상학과 여인만 교수, 저서 “일본자동차공업사” 동경대학교 우수도서 출간
- ◎ 한송 총장, 체육학과 김용근 교수, 강원도체육회 공로패 수상
- ◎ 대기환경과학과 최효 교수, 나이지리아의 SCI 및 인도의 SCIE 국제저널 핵심 Editor로 선정
- ◎ 무역학과 박형래 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 임명
- ◎ 관광경영학과 이창기 교수, 한국호텔관광학회 7대 회장 취임
- ◎ 독어독문학과 안진태 교수, 저서 “독일 제3제국의 비극”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 체육학과 김기영 교수, 저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의 이론과 실제”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 여성인력개발학과 황병수 교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유공자에 대한 공로 표창 수상
- ◎ 토목공학과 윤찬영 교수, 2010년 지반공학회 가을학술발표회 Best Poster 수상, 2011년 지반공학회 봄학술발표회 우수 논문 수상
- ◎ 환경조경학과 김충식 교수,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 ◎ 해양생물공학과 전중균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



교수회 활동

2010. 6. ~ 현재

1. 제22호 교수회보 제작

- ◎ 교수회보 제작 : 2010년 6월 전체 교수님께 전달
- ◎ 내용 : 회장인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우리 대학의 위상 및 과제, 특별기고, 신입교수 및 정년퇴임교수 소개, 교수 동정, 교수회 활동, 2010년 기성회계 예산안 심의 의견요약, 설문조사 결과 자료

2. 국제교류관 건립 찬·반 투표 실시 및 결과

- ◎ 투표 결과
 - * 투표자수 : 190명 * 찬성 : 22명 * 반대 : 156명 * 기권 : 12명
- ◎ 투표 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제16-7차 평의회(2010.7.13) 개최
 - 내용 (표결 참여 평의원 26명) :
 - (1) 기성회계 예산으로 국제교류관 건립 찬·반 투표 개표 결과는 (총 190명중 156명 반대) 전체교수의 과반수가 반대한 결로 인정한다.
 - ① 인정 (15표) ② 불인정 (10표) ③ 기권 (1표)
 - (2) 후속조치 방안
 - ① 연기요청 (13표) ② 백지화 (11표) ③ 기권 (2표)

3. 교수회 회의실 이전 및 이전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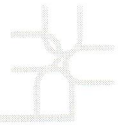
- ◎ 2010년 9월 2일 : 교육지원센터 2층 214호(교수회 사무실), 215호(교수회장실)로 이전
- ◎ 2010년 9월 30일 : 이전식 및 다과회

4.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선출 투표 실시

- ◎ 위원 교수 명단 (35명)
 - 인문대학 : 김은심, 박소현, 손남익, 안필규, 최재식
 - 사회과학대학 : 김경숙, 김천영, 안종수, 김영식
 - 자연과학대학 : 남궁용, 김순귀, 최충현, 정진승
 - 생명과학대학 : 김은경, 박기영, 박용진, 이상민
 - 공과대학 : 김한수, 박상덕, 이상민, 정효태
 - 예술·체육대학 : 정우진, 정태한
 - 치과대학 : 고성희, 김경년, 박호원
 - 문화대학 : 서길희, 김승민, 박수자, 송수희
 - 과학기술대학 : 이재현, 윤희환, 이태연, 송성재, 이원섭

5. 2010년도 정기총회 자료 배포

- ◎ 2010년 12월 전체 교수님께 정기총회 자료집 전달 (제16-10차 평의회에서 총회를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결의)



◎ 내용 : 제16대 교수회 주요활동, 2010년도 교수회 회계 결산보고서, 감사의견서

6. 교수회 법정화 TFT 구성 및 활동

◎ 교수회 법정화 TFT 교수 명단 :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최재식, 백경구, 고민수

◎ 교수회에서는 전국의 거의 모든 국립대학교에서와는 달리 유독 우리학교에서만 교수회가 법정기구화 되지 않아서(타대학 학칙화 분석결과 참조) 교수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면모를 일신하고자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TFT’를 구성하였다.

2010년 11월에 TFT를 구성한 이래 4개월간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안을 작성하였고 2011년 3월 평의원회에서 의견수렴과 수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최종안은 학칙, 교수회, 평의원회, 단과대학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교수회는 향후 이 3가지 규정이 학칙에 반영되어 교수회가 법정기구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7. 성과연봉제 저지,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 및 서명 운동

◎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 서명 : 189명

◎ 기금 모금 : 1,690,000원 (156명)

◎ 2011년 4월 1일 서명원부 및 기금을 국교련에 전달

8. 신입교수 환영회

- 2011년 강릉원주대학교 부임 신입교수 환영회 개최(2011년 4월 26일)

정명재 교수(대기환경과학과), 최성범 교수(체육학과), 유기연 교수(치의학과), 배수명 교수(치위생학과), 김대식 교수(정밀기계공학전공), 김민근 교수(치의학과, 2010년 부임)

9. 평의원회 개최

* 제16-6차 평의원회 (2010.6.15)

- 안건 1. 국제교류관 건립 건
- 2.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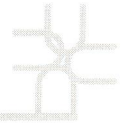
* 제16-7차 평의원회 (2010.7.13)

- 안건 1. 국제교류관 건립 찬·반 투표 개표 결과 협의
- 2. 기타

* 제16-8차 평의원회 (2010.9.9)

- 안건 1. 교무처장, 학생처장 임명 동의건
- 2. 기타

* 제16-9차 평의원회 (2010.10.19)



- 안건 1. 교수회 법정화 TFT 구성 건
- 2. 보직교수 임명 동의시행안 개정 건
- 3. 기타

* 제16-10차 평의원회 (2010.11.10)

- 안건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건
- 2. 기타

* 제16-11차 평의원회 (2011.3.9)

- 안건 1. 교수회 법정화 관련 학칙 및 규정 개정 건
- 2. 기타

10. 국교련, 지교련 출장

1) 2010년 지교련 제22차 회장단 회의 (6월 4일 ~ 5일, 목포대학교)

- 안건 1. 국립대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토의
 - 2. 국립대 법인화 대응 방안 토의
 - 3. 기타 현안 문제
- 참석 : 회장 박찬일

2) 2010년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 (6월 18일, 전남대학교)

- 안건 1.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및 국립대 법인화 대응 방안
 - 2. 기타
- 참석 : 수석부회장 구자혁

3) 2010년 국교련 하계세미나, 제3차 임시총회 (8월 23일 ~ 24일,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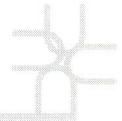
- 안건 1. 자율형 국립대학(안)
 - 2. 국립대학 발전방향
 - 3. 기타
- 참석 : 회장 박찬일

4) 2010년 국교련 제4차 임시총회 (10월 15일, 강원대학교)

- 안건 1.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활동 방향 및 일정
 - 2.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대응책
 - 3. 기타
- 참석 : 회장 박찬일, 수석부회장 구자혁, 부회장 김백기

5) 2010년 지교련 제23차 회장단 회의 (11월 12일 ~ 13일, 군산대학교)

- 안건 1. 국립대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토의
- 2. 국립대 법인화 대응 방안 토의
- 3. 기타 현안 문제



참석 : 회장 박찬일, 부회장 김백기

6) 2010년 국교련 제6차 임시총회 (12월 17일~18일, 전북대학교)

- 안건 1.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 및 세부 활동 방향 및 일정
2. 행정안전부의 성과연봉제 수정안 입법예고 대응 방안
3.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 서명 세부 활동 계획
4. 기타

참석 : 회장 박찬일

7) 2011년 국교련 정기총회 (2월 17일, 경북대학교)

- 안건 1. 신임 집행부 선출
2.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활동 방향
3. 성과연봉제 법적대응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 대응책
4. 기타

참석 : 회장 박찬일, 수석부회장 구자혁

8) 2011년 국교련 제1차 임시총회 (4월 8일 ~ 9일, 경북대학교)

- 안건 1. 주요 임원 임명동의(안)
2. 2011년 국교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3. 회칙 개정(안)
4. 기타 안건

참석 : 회장 박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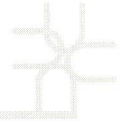
9) 2011년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 (5월 20일, 충북대학교)

- 안건 1. 국립대선진화방안 법률대응 건
· 성과급적연봉제 헌법소원 청구 건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건
2. 기타 안건

참석 : 회장 박찬일, 수석부회장 구자혁

1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식

- ◎ 2011년 5월 2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 2011년 5월 27일,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제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타대학 학칙화 분석결과

	학칙기구화 여부	학칙기구화가 언제부터인지?
강원대학교 교수평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 2. 평의회 (?)
경북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1. 교수회 (1999.12.14) 2. 평의회
공주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	1. 교수회 (2004년) 2. 평의회 (2004년)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1. 교수회 2. 교수평의회 (○) - 운영규정 개정 중	1. 교수회 2. 교수평의회 (2010년)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 2. 평의회 (1987년)
부산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	1. 교수회 (2005.9.1) 2. 평의회 (2005.9.1)
순천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대의기구, ○)	1. 교수회 (2005년) 2. 평의회 (2005년)
안동대학교 교수평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 2. 평의회 (2005년)
전남대학교 평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 2. 평의회 (1988.2.24)
창원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	1. 교수회 (2003?) 2. 평의회 (2003?)
충북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학칙 제109조에 들어가 있으나, 대학 평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1. 교수회 (2003년 11월 10일 규칙 공포) 2. 평의회



제16대 교수회 평의원 명단

2011. 06. 01. 현재

구 분	성 명	소 속 학 과	연 락 처	임 기
회장	박 찬 일	정밀기계공학	pci@gwnu.ac.kr	2011.10.31
수석부회장	구 자 혁	영 어 영 문	jhkoo@gwnu.ac.kr	2011.10.31
부회장	김 백 기	정보통신공학	bkkim@gwnu.ac.kr	2011.10.31
인문대학 평의원 (5)	손 남 익	국 어 국 문	sonni@gwnu.ac.kr	2012.02.28
	이 철	영 어 영 문	chollee@gwnu.ac.kr	2012.02.28
	김 창 진	독 어 독 문	cjkim@gwnu.ac.kr	2012.02.28
	홍 영 희	중 어 중 문	hyxi@gwnu.ac.kr	2012.02.28
	최 재 식	철 학	zschoi@gwnu.ac.kr	2012.02.28
사회과학대학 평의원 (5)	고 민 수	법 학	brunus@gwnu.ac.kr	2012.04.07
	민 남 식	경 영	nsmn@gwnu.ac.kr	2012.04.07
	반 선 섭	회 계	ssban@gwnu.ac.kr	2012.04.07
	황 윤 진	경 제	yjhwang@gwnu.ac.kr	2012.04.07
	임 동 일	도시계획부동산	limdi@gwnu.ac.kr	2012.04.07
자연과학대학 평의원 (4)	김 병 곤	대 기 환 경 과 학	bgk@gwnu.ac.kr	2012.02.28
	김 홍 철	수 학	hongchul@gwnu.ac.kr	2012.02.28
	백 경 구	화 학 신 소 재	baeck@gwnu.ac.kr	2012.02.28
	이 규 송	생 물	leeks84@gwnu.ac.kr	2012.02.28
생명과학대학 평의원 (4)	박 용 진	환 경 조 경	yjpark@gwnu.ac.kr	2013.03.01
	노 정 미	식 품 영 양	jaha@gwnu.ac.kr	2013.03.01
	진 형 주	해양분자생명공학	hj-jin@gwnu.ac.kr	2013.03.01
	김 정 호	해 양 자 원 육 성	jhkim70@gwnu.ac.kr	2013.03.01
공과대학 평의원 (4)	신 현 호	세라믹신소재공학	hshin@gwnu.ac.kr	2011.06.22
	염 승 호	생 명 화 학 공 학	shyeom@gwnu.ac.kr	2011.06.22
	김 동 욱	산업정보경영공학	donguk@gwnu.ac.kr	2012.06.22
	김 종 오	토 목 공 학	jokim@gwnu.ac.kr	2012.06.22
예술·체육대학 평의원 (2)	하 연 수	미 술	poppy@gwnu.ac.kr	2012.11.04
	최 성 범	체 육	sbchoi@gwnu.ac.kr	2013.05.31
치과대학 평의원 (4)	박 호 원	치 의 학	pedo@gwnu.ac.kr	2012.01.14
	김 철	치 의 학	chkim@gwnu.ac.kr	2012.01.14
	조 영 경	치 의 학	ykcho@gwnu.ac.kr	2012.01.14
	김 영 준	치 의 학	alcor3@gwnu.ac.kr	2012.01.14
문화대학 평의원 (4)	서 길 희	간 호	ghsuh@gwnu.ac.kr	2013.03.20
	한 기 련	여성인력개발	hanaro@gwnu.ac.kr	2013.03.20
	이 영 속	패 션 디 자 인	younger@gwnu.ac.kr	2013.03.20
	송 수 희	유 아 교 육	songsh@gwnu.ac.kr	2013.03.20
과학기술대학 평의원 (5)	박 성 곤	멀티미디어공학	spark@gwnu.ac.kr	2013.03.20
	전 병 국	정 보 기 술 공 학	jeonbk@gwnu.ac.kr	2013.03.20
	이 종 석	정 밀 기 계 공 학	jslee@gwnu.ac.kr	2013.03.20
	송 성 재	기 계 의 용 공 학	sjsong@gwnu.ac.kr	2013.03.20
	오 익 수	자 동 차 공 학	isoh@gwnu.ac.kr	2013.03.20



공예조형디자인학과 김미옥 교수 작품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박찬일 ■ 편집인 : 구자혁, 김백기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전화 : 033-640-2749 ■ 팩스 : 033-640-2749 ■ 이메일 : knupa@gwnu.ac.kr ■ 홈페이지 : <http://pa.gwnu.ac.kr>